

미혼모 당사자 및 전문가 집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연구

-보육교사 대상 교육 모델-



미혼모 당사자 및 전문가 집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연구
-보육교사 대상 교육 모델-

2015. 6

연구자 : 성정현(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영미(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자 문 :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천과 전문가 역량의 관계 이해		
미혼모 관련 제도와 서비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장 ○ 자녀양육지원 ○ 주거지원 ○ 보건과 건강지원 ○ 심리사회 지원 및 통합적 서비스 ○ 청소년 미혼모 자립지원 		미혼모 당사자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제공	강의 ppt	15분
보육교사대상 : 아동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아동의 발달과 특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모 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 아기를 지킨 엄마들의 임신출산위기의 심각성 해소 - 정의와 평등 실현으로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 - 차이의 인정과 수용을 통한 사회통합에의 기여 - 전문가로서 윤리 준수 및 역량강화 	미혼모의 자녀양육 상황과 유아의 특성이해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 함양 애정과 인정에 근거한 상호작용 방법 학습	강의 (ppt)	30분
	상호작용과 배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발달과 특성의 이해 - 미혼모의 자녀양육 및 아동의 특성 이해 ○상호작용과 배려 -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 반편견 교육의 실시 - 비밀보장: "남이 알기 원치 않아요" vs 유아와 가정에 대한 윤리 - 애정과 전문성에 기반한 긍정적 상호작용 - 유아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유아인권 및 공동체의식 함양 상호작용방법 교육	토론 (반차별 도서 활용) 모의학습 집단활동 등 택	30분
교육정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요약 ○질의 응답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지 작성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 재확인	강의정리 평가 설문지	20분

● 교육 내용

1. 공통교육 I

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미혼모의 발생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미혼모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미혼모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미혼모의 사회구조적 발생 원인과 미혼모에 대한 차별 및 고정관념의 원리를 이해한다.
-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고, 차별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는데 동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전문가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인식개선 및 실천하는 것과 전문가 역량의 관계를 이해한다.

나 교육방법

1) 강의

- 미혼모 실태와 특성에 대한 이해
 - 미혼모의 개념과 실태
 - 미혼모 발생원인
 - 미혼모에 대한 인식: 낙인과 차별
- 미혼모 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 아기를 지킨 엄마들의 임신출산위기의 심각성 해소
 - 정의와 평등 실현으로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

- 차이의 인정과 수용을 통한 사회통합에의 기여
- 전문가로서 윤리 준수 및 역량강화

2) 토론

- 미혼모가 경험하는 차별의 사례를 제시하여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차별 철폐 및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토론 사례는 교육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음).

토론 사례 A

미혼모 A는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경제위기로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생인 언니가 야간자율학습으로 늦게 오면서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에 오랜 시간 머물다가 같은 학교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몇 일 후 친구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그 일로 걱정하다 남자친구에게 얘기했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로 여러 달이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자퇴를 하라고 강요하여 미혼모시설로 오게 되었다. 현재 시설에서 아기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지만, 학교로 돌아가서 나머지 학업을 마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한다. 학교를 계속 다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라고 하는데, A는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학교와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

토론주제: 중학생인 A가 미혼모가 된 이유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시오.

3) 설문지(가치관 검사)

-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인식도를 알아본다.
- 검사결과 중 특히 낮은 평균이 나온 항목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 교육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교육을 마무리한다.

- 부록 참조

다. 교육내용

1) 미혼모 실태와 특성에 대한 이해

(1) 미혼모의 개념과 실태

① 개념

청소년기본법(제 1장 제 3조 1호)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미혼모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혼인 전이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이혼했거나 과부로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의미한다(서정문, 2008).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혼으로서 아이를 갖게 되거나 별거 혹은 이혼, 배우자 사망의 상태로 배우자 이외의 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총칭한다.

② 실태

우리나라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이며 몇몇 자료에서만 일부 조사 자료를 인용해 그 실태를 가늠하고 있다. 그 중 통계청(2005)의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십대(15세-19세)의 출산율은 인구 천 명당 23명 정도에 이르며, “인구동태통계연보”에서는 2005년도에 약 21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 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석봉·석창훈, 2008).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3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구)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서는 약 5,000명~6,000명 정도의 청소년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한해에 약 3,000~6,000명의 십대출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미혼모의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1984년에는 58%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72%, 2005년에는 317%, 2009년에는 664%로 증가하였으며(M Lee, 2012), 입양특례법의 개정 이후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혼모의 발생원인

① 개인적 원인

미혼모의 대부분은 원치 않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미혼모들 중에는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결혼을 전제로 임신하였지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혼모가 된 경우도 있다. 또 자유연애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과거보다 혼전 성경험 비율이 높아져 남녀 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아기를 임신한 이후에는 아기 아빠의 거부와 연락두절, 인공유산의 어려움으로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홀로 감당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미혼모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미혼모가 된 원인이나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런 개별성은 간과된 채 미혼모는 '자기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한 여자'로 집단 낙인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라서, 그런 부분은 아직도 슬퍼요. 저한테 좀 속제예요(당사자-2)

근데 이렇게 냉정하게 변할지 몰랐어요. 지 새끼 아니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애기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싫어서 헤어지는 거면 괜찮은데 애 아빠 노릇..... 진짜 안 본다는 그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애만 한번이라도 보러왔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많이 힘들진 않았을텐데..애기아빠랑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니까...사람들이랑 만나기 싫은 거예요(당사자-7).

② 가족적 원인

미혼모의 실태나 발생 원인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풍부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 연구들에서 가족관계가 소원하거나 부모의 충분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일 때,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 간 유대감이나 응집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때 미혼모의 발생이 증가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미혼모 중에는 부모의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도 소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거나 혹은 빈번하고 풍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주거가 불안정할 때 미혼모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해 부모의 갈등이나 별거 혹은 이혼을 경험하면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도 장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거나 혹은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임신한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냥 무작정 그냥 집에서 부모님하고 있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다 남자친구 만나서 애낳게 되고 임신하게 된 거지만(당사자-5)

제발 아빠랑 떨어져 살자고. 우리끼리 살면 안되냐고. 엄마는 옛날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런거 안 먹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집 나온것도, 아빠랑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일찍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요.(당사자-7)

③ 사회적 원인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성문화와 성산업의 확산, 대중매체 및 통신기기의 확대로 성적 표현이 과다하게 노출됨으로써 성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성행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혼외 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이중적 관념이 팽배하여 미혼모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문정숙 김영희, 2014) 또 위에서 제시한 가족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세대간 관계의 문제를 포함한 빈곤의 세대간 전이문제,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임신과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미혼모에 대한 인식: 낙인과 차별

낙인(stigma)은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욕된 판정이나 평판을 이르는 말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낙인은 도덕적으로 오점이 있거나 의식상 흠이 있기 때문에 기피해야할 인물, 특히 공공장소에서 거부해야할 인물임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낙인은 보통 신체적 인 혐오에서 오는 낙인, 성격상의 결함에 의한 낙인,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집단낙인으로 구

분된다.

낙인은 통상 특정 범주의 구성원은 특정 규범을 옹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모든 당사자들에게 깔려있을 때 발생한다. 특히 집단 낙인은 개인적 차원의 낙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낙인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 예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한부모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미혼모는 집단낙인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 여기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있는 특정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혐오, 배제, 분리 등의 기제가 작동하는 직접적인 형태로 행해지기도 하고, 또 겉으로는 중립적이거나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에 의해 특정 소수자 집단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이윤호·김대권, 2007).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인종, 성별, 신체적 특징 등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인구학적 요인과 소유, 지위, 빈부, 학력 등과 같이 변화 가능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구분되는데(배화옥·김성희, 2004),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별, 연령, 빈부,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성차별은 유교규범과 가족주의로 인한 권위주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남녀차별, 고용상의 성차별, 미혼모, 여성 한부모 차별 등의 형태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여성 집단보다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이런 태도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성규범과 가족 중심적 사고가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김혜숙, 2005; 김희주, 2012).

학교를 안다니고 애를 키우니까. 그냥, 너무 달라졌어요. 저한테 행동들, 태도들.....애기를 낳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 취급하고(당사자-1)

모자이크 처리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이런데 올라간 적 되게 많았거든요. 그 때마다 댓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너 같은 년이 왜 우리나라에 있냐. 막 이려고. 죽어버려라 창녀같은 년 이런게 다 써있어요. 좋은 말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안 좋은 말이에요.(당사-2)

실제 미혼모는 학업중단, 정치참여 감소, 무관심, 직업안정 파괴, 문화 단절 및 폭력 노출 등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이미정, 2009; 이현주·송진아, 2011; Polakow et al, 2001;

Usdansky, 2009; Zhang and Anderson, 2010). 특히 10대 미혼모는 학업중단을 경험함으로써 ‘신분과 지위의 박탈’ 또는 ‘학력사회로부터의 일방적인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이현주, 송진아, 2011; Creighton et al, 2009), 미혼모와 그 자녀는 우리사회에서 방치되어 지속적으로 해외입양의 대상이 되어왔다(이미정, 2009). 양육미혼모도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과 대우에 있어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Polakow et al, 2001).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선택을 인정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동을 인식하고, 개인 혹은 집단 간 차이를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포용력을 함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미혼모 차별과 낙인 실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을 보면,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그 다음 학벌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과 외모에 따른 차별, 가난, 비정규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뒤를 이었다 또 차별경험의 실태에서는 장애인, 여성, 가난한 사람, 미혼모나 한부모등 가정환경 등에 따른 차별이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공통점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차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인간적 모욕과 무시, 채용이나 해고상의 불이익, 결혼과 친구관계 회피, 놀림 등에서 여성과 가정환경에 따른 경험 및 목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박수미, 2004).

미혼모들끼리도 편견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왜 애가 둘일까 아빠가 다를까 아빠가 똑같은까 둘일까도. 왜 애가 셋이고 아빠가 다 다른가 이런거? 그리고 재는 애기 아빠랑 만나면서 왜 지가 미혼모라 해?(당사자-6)

2) 미혼모 이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1) 아기를 지킨 엄마들의 임신출산위기의 심각성 해소

20대 이상의 미혼모들은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성애(sexuality)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함께 스스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성애,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에 대해 사회는 미혼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청

소년 미혼모뿐만 아니라 20-30대의 성인 미혼모의 경우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 배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성의 불인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원가족의 거부와 배척으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거나 임신사실로 인한 고용 해지를 경험하고 있다. 아기 아빠들 역시 대부분 아기의 임신을 거부하거나 혹은 연락이 두절되는 경향이 있어 미혼모는 임신의 책임을 홀로지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엄마가 돈 다 대출테니까 지우자고. 그런데 엄마도, 어릴 때 저희 언니를 낳아서. 그렇게, 그거는 엄마는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키운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속상해하시고.(당사자-1)

다시 만났는데 임신한 걸 알고 저보고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 낳기 한 10일 전부터 집 나갔었거든요.애기 낳는 날, 양수 터진 날 전화해서 양수터졌다고 하니깐 온거예요. 와가지고 병원에서 애기 낳고 조리원 갔다가 집에 같이 왔거든요. 집에서 생활하다가 애기 낳고 한 달 정도 었을 때가 설이었거든요. 그때 설에 친정 보내놓고 집 나갔어요.(당사자-7)

미혼모들이 어떠한 이유로 임신을 하였든, 아기를 지킨 엄마들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10대, 20대, 30대의 미래를 위한 모든 계획과 노력을 중단하고 아기를 인공유산의 강요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 생명으로 탄생시킨 ‘어머니’라는 점은 다른 혼인 내에서 출산한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다. 비록 ‘인공유산 시기를 놓쳐서’아기를 출산했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애착’과 ‘아기를 키워야 할 것 같은 책임감’ 때문에 양육을 선택한 것이다(K Song, 2012; 문정숙·김영희, 2014 재인용). 따라서 ‘아기를 지킨 엄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모성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기를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를 때까지 고스란히 미혼모에게 투영되고 있다. 미혼모들 중에는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하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도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인공유산을 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어도 시기를 놓치거나 비용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부모의 반대로 집을 나와 주거를 전전하다가 결국 무방비상태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예기치 않은 생활사건으로 미혼모들 중 상당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산전산후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거나 우울과 불안, 두려움, 죄의식, 수치심 등을 경

험하는 가운데 아기를 출산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통해 아기를 호적에 올리고 또 출산 후 숙려기간을 가짐으로써 입양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자기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양육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법적 낙태시술을 하거나 혹은 의료적 도움 없이 소위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10개월의 긴 기간을 홀로 버텨내고도 정작 아기를 품에 안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안전한 산전산후관리 및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정의와 평등 실현으로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

“우리 누구도 편견, 선입견, 인종차별, 성차별을 받기를 원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가난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켜본 어릴 적 경험은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회정의와 다문화주의, 다양성에 대한 나의 활동은 이런 어릴 적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다문화상담).

임신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안 찢리고 계속 다니게 해줬다면 뭔가 희망이라도 보였을거 같아요. 희망을 찾았겠지만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임신사실이 들통이 나고 그와 함께 찢리고(당사자-6)

차별은 성별,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태생적 혹은 사회적 성격을 사유로 교육이나 일상생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차별이 불평등, 불공정, 형평성 등의 다른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또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차별은 넓은 의미에서 감정적 측면인 편견과 신념적 측면인 고정관념, 태도나 행위적 측면의 차별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박수미, 2004). 이중 편견은 특정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범주화와 일반화라는 두 가지 인지적 과정의 결합을 통해 드러난다. 즉, 특정 사건이나 이슈와 관련된 광대한 정보를 특정한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범주하고 또 그 자료를 일반화하는 것인데, 이런 편견은 보통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홀리먼과 로버; 방기연 역, 2010). 따라서 부정적 평가를 내포한 편견이 특정한 사회집단과 관

련된 지식, 신념, 기대를 의미하는 고정관념과 결합되는 경우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또 낙인과 차별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다수자의 불합리한 편견에서 비롯되어 관습이나 법으로 제도화되고, 사회화 또는 교육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와 불합리한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박상준, 2014).

또한 차별은 개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성과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박수미, 2004).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은 사회적 불의의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담론의 핵심중 하나는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수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완전한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허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참여의 평등이며, 평등한 참여인 것이다(박영도, 2004). 여기서 평등의 이념은 부의 평등한 분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선혜영, 2012).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미혼모가 겪은 학습권 침해, 취업과 고용유지의 어려움 등은 그들이 평등한 존재임을 거부당하고 참여의 평등 또한 제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차별을 불식시키고 또 평등의 차원에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차별은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었던 인정의 기대가 무산되거나 거부될 때 발생하는 모욕의 경험과 무시를 낳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서적 측면으로서의 모욕과 무시의 측면 보다는 분배와 물질적 이익의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이익의 불평등을 넘어 인정의 결핍과 거부에서 생기는 무시와 모욕의 체험은 마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무시의 상태를 개선하고 인정 상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박영도, 2004:7-10)

셋째, 차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어릴 때 부모와 교사로부터 받은 교육내용은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가족상황 등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학벌주의적 태도는 이런 태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박수미, 2004).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사회화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별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대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차별의 부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차별의 개선에 따른 형평성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즉, 차별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해도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으로 그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산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차별을 받는 경우 그 개인이 속한 조직 혹은 기업 또한 추가적 비용을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유경준, 2004).

특히 미혼모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가족의 경우는 자녀 또한 비복지 상태에 놓일 수 있고, 공정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 미혼모의 자녀가 이후에도 최소한의 복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은 매우 장기적일 수 있다. 이것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복리 차원과 국가적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차별과 배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4월 18일 발표한 “2007 아태 지역 경제사회 조사 (UN’ S ECONOMIC AND SOCIAL SURVEY FOR ASIA AND THE PACIFIC 2007)” 는 아태지역의 성차별로 인한 비용이 한해 8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고용 기회 제한으로 연간 420억~45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여성의 교육 기회 제한으로 160억~3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외에 사회적·개인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이 30~40%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unescaporg/survey,2007>)

(3) 차이의 인정과 수용을 통한 사회통합에의 기여

우리 사회는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실생활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에도 이런 다양성을 포괄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쟁점을 다루게 된 것은 무엇보다 가족의 다양성 이슈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김혜영, 2008).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그리고 미혼모가족 등의 출현으로 이제는 가족의 유형과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다(우국희 외, 2014)

이런 다양성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로서 ‘상호관용(tolerance)’과 ‘상호보살핌’이 필요하다(이수안, 2009). 여기서 관용은 묵인, 허용, 인내, 감수 등과 부분적으로 뜻을 공유하는 말로,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뜻하며, 상호관용은 어느 일방이 은혜를 내리는 식의 관용이 아니라 양측이 주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을 뜻한다(김용환, 1993). 이런 관용 혹은 상호관용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통합하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관용을 통해 우리는 개인들 간의 실제적 상호작용과 호혜적 접촉에 대한 상이한 가치를 서로 수용하고 조정하며, 이런 조정에 대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다(Walzer, 2004, 이수안, 2009 재인용).

한편, 우리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울리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섞이는 융합과 통섭(consilience)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차이와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과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인정(recogni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에서 비롯되는 타자의 가치와 정체에 대한 인정은 다양성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배와 불인정, 경멸 등과 같은 부정의(injustice)를 해결하고 상호 인정을 이루기 위해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4) 전문가로서 윤리 준수 및 역량강화

전문직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신념, 사회적 인정의 요건을 갖춘 직종 혹은 직업을 뜻한다. 이런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수행은 각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윤리(ethics)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을 뜻한다. 윤리는 어떤 사건 혹은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직이 지향하는 가치기준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는 각 분야에서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구체화된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는 교직자로서의 윤리를, 의료진은 생명의료윤리를, 그리고 공무원은 공직윤리를 준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과 연령, 사회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와 사생활 존중, 개인의 정보보호 및 비밀 보장, 자기 결정권 등을 매우 주요한 직업윤리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직업윤리에 비추어볼 때, 어떤 전문가든 미혼모와 그 자녀를 성별, 지위, 계층, 가족상황 등으로 인하여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특히 가족과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한 민감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윤리적 책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주어진 상황에 윤리적 이슈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윤리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는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은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자는 인간을 둘러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이혼과 사별, 혼외출산,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인 가치(values)는 선호하는 것 혹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자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바람직한 상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점검보고 또 항상 가치와 윤리, 그리고 전문성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공통교육 II

가. 미혼모자 관련 정책 및 서비스¹⁾

1) 생활보장

① 기초생계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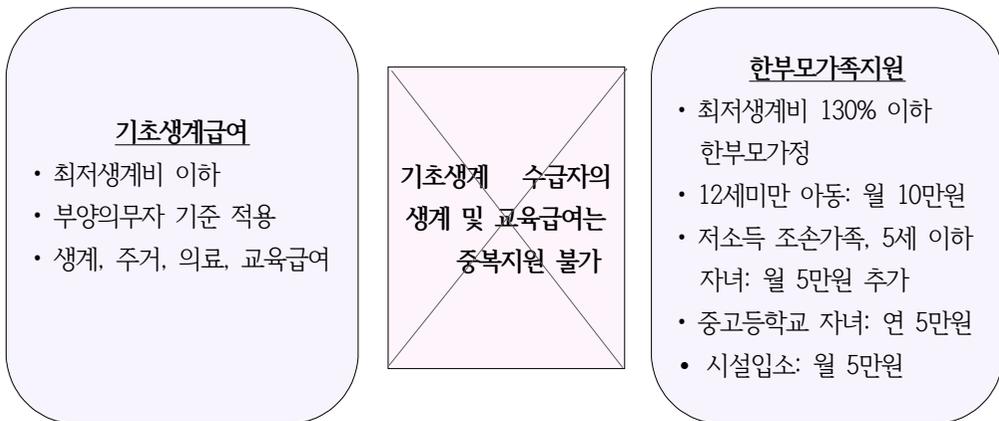
최저생계비 이하의 미혼한부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계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계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가 포함된다. 수급비 신청 시 미혼모당사자와 1촌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관

1) 미혼모·부자가족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였음.

계가 단절된 미혼모들의 경우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한계들을 파악하여 미혼한부모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인 한부모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조손가족과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정에게 월 5만원이 제공된다.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연 5만원의 학용품비가 제공된다. 시설입소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림 1> 기초생계급여(생계, 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의 중복급여 제한

③ 청소년미혼모 자립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정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7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으로 8만원만 지급받는다. 그밖에 청소년한부모의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지원),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월 10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자립지원 내용

- 대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자격조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정
- 내용:
 -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15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교육학원에 지급)
 -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실비)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그림 2>청소년 미혼모 자립지원 내용

④ 시설 지원

미혼임산부와 양육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미혼임산부를 위한 산·전 후 시설과 2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등이 있다. 각 시설에서는 무료로 숙식과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방과 후 아동지도,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을 지원한다. 시설에 거주하며 기초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표 1>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유형 (2014년 현재)

시설유형		시설 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정원)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기본생활 지원	33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개월 연장), 784명
	공동생활 지원	25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연장), 220세대
		1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개월 연장), 10명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기본생활 지원	41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연장), 1,057세대
	공동생활 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모자가족	2년(1년 연장), 40세대
	자립생활 지원	3	기본생활지원 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연장), 41세대

⑤ 보건과 건강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모든 산모는 전자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1회/50만원)받을 수 있고, 18세 이하 산모는 맘편한 카드를 통해 1회당 120만원까지 임신과 출산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 고운맘 카드와 맘편한 카드를 이중으로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건소 건강지원사업

먼저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혈액검사, 소별검사, 기형아 검사 등 기본 산전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임신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제공하고,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13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정 중 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과 6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는 무료이지만 최저생계비 120-200%의 가정은 비용의 10%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산후서비스로 보건소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이 사업은 월평균 소득 65%이하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도우미를 신청한 미혼모는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출산예정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2> 미혼모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 및 건강지원 사업

지원 유형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일반 미혼모	·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진료비용, 1회 50만원 이내 부담 ·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 · 카드 수령 일부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청소년 미혼모	· 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1회 120만원이내 지원 (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맘편한카드 제공 · 카드 수령 일부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 고운맘카드와 별도로 신청 가능함
보건소 지원 사업	산전·후 보건 지원	·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임신초기(빈혈, 혈액, 소변)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막달(빈혈, B형간염, 혈액, 소변)검사(기본 산전검사 무료) · 철분제(임신 16주 이상) 및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13종) 전액지원 (만 12세이하 어린이)
	영양플러 스	· 대상: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최저생계비 120~200% 가정은 10% 자부담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이 있는 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실시
	산모·신생 아도우미 서비스	· 대상: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 · 1일 8시간, 2주 12일 이내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내용: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 접종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 정리 (<http://www.mw.go.kr>)

⑥ 자녀양육지원

○ 자녀양육비이행서비스

미혼모는 소득, 개인재산정도에 상관없이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자녀인지청구소송과 양육비 청구 및 지급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미혼모들의 자녀인지 및 양육비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대상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

- 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 개인재산 상관없음)
- 내용: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소송대리 등)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등)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강제집행,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 (아래의 사업수행기관에 전화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그림 3> 한부모가족 대상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

○ 아이돌보미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200-240시간까지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연 480시간 이내로 아동을 돌보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보담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⑦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및 포괄적 지원서비스 제공

미혼 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 등 전국 17개소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을 통해 미혼모·부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서지원과 출산지원 및 양육(위기)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미혼모·부자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정보공유와 자조모임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등의 민간지원기관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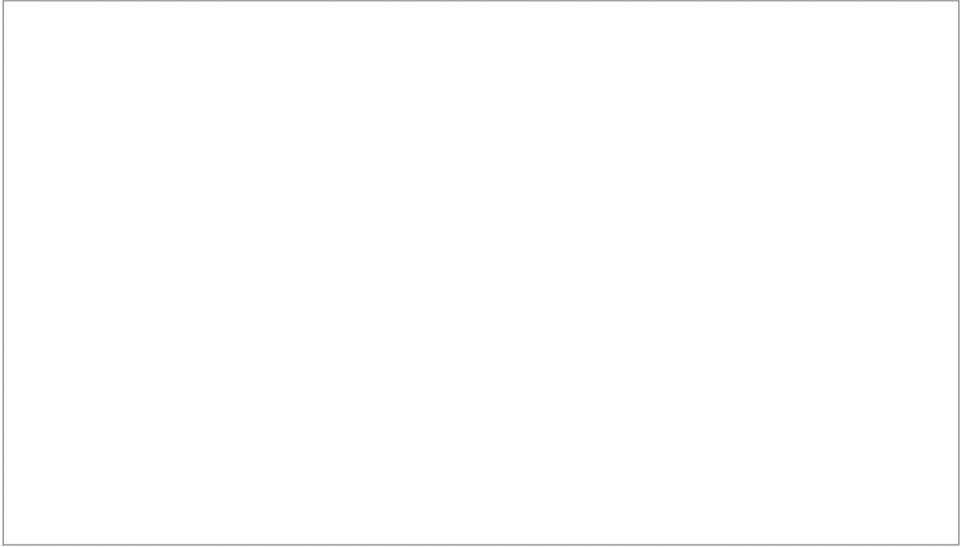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위기지원 프로그램

- 대상: 미혼모·부자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비수급자, 24-30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내용: 병원비(출산비, 자녀 입원비 등), 생필품(분유, 기저귀 등)
- 지원금액: 연간 70만원 이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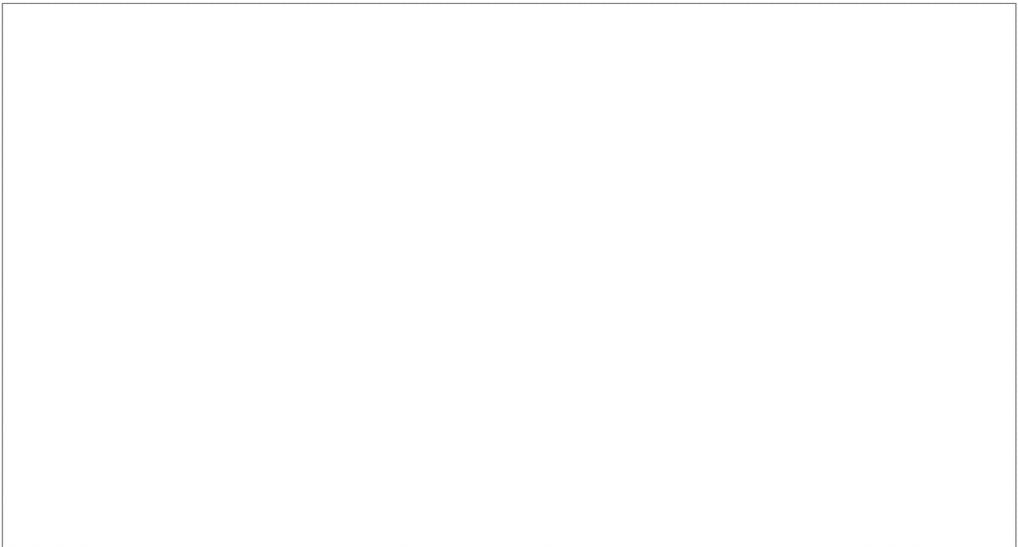
양육미혼모들을 위한 민간지원단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http://www.kumsn.org/kor>)
 한국미혼모가족협회(<http://cafe.naver.com/missmammamia>)
 대구미혼모가족협회(<http://www.missmam.prunit.com>)

<그림 4> 미혼모부자거점기관과 양육미혼모를 위한 지원단체



<그림 5> 시설거주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지원 사례



<그림 6> 재가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지원 사례

3. 보육교사 대상 교육

가. 교육목적

미혼모와 그 자녀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전문가로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한다.

나. 교육목표

- 미혼모의 자녀양육 상황과 유아의 특성을 이해한다.
- 유아인권의 개념과 하위요소를 이해하고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함양한다.
- 애정과 인정에 근거한 상호작용 방법을 학습하고, 차별없이 대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반편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래 유아들에게 효과적으로 인권 및 반편견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미혼모가정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기여한다.
- 직업윤리로서 비밀보장과 가정에 대한 윤리를 이해한다.

다. 교육방법

1) 강의

○ 아동의 발달과 특성의 이해

- 미혼모의 자녀양육 및 아동의 특성 이해

○ 애정과 전문성에 기반한 긍정적 상호작용

-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대하는 법
- 반편견 교육의 실시
- 비밀보장: "남이 알기 원치 않아요" vs 유아와 가정에 대한 윤리
- 유아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2) 토론(반편견 도서의 활용)

- 보육교사들에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나 미혼모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토의를 유도한다.

토론사례

미혼모인 순이씨의 자녀인 철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하원한다. 어머니로부터 철이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몇 일에 한번씩 좀 늦게 데려가게 될 것 같아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늦게 퇴근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철이에게도 왜 엄마가 늦게 오냐고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다.

토론거리:

- ① 미혼모가족 자녀가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하원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고충과 대안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 ② 어머니가 늦게 오는 유아에게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해보고 적절한 대안을 토론해봅시다.

- 반편견 도서나 그림책은 인종, 동물, 외모, 음식, 가정에 관한 편견이 반편견 동화나 그림책을 통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며, 동화나 그림책 속에서 다양성과 인간의 경험을 알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책이다. 보육교사가 유아가 반편견 혹은 반차별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유아들에게 반차별 도서중 하나를 택하여 읽어주고 유아들 이차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반차별도서는 부록 참조)

3) 역할시연(role playing practice)

- 모의학습 혹은 역할시연은 실제 시계속의 다양한 언어적 상황을 교육의 현장 속으로 재구성하여 실연하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교수학습 방법이다(최진호, 2011).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미혼모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해 학부모로서 미혼모와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학부모상담을 하는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실연해보도록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인식개선에 동참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역할시연 상황 1

상황: 철이의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철이를 키우고 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보육교사가 틱 증상을 보이는 철이 문제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었다. 철이의 어머니 순이 씨는 어렵게 약속을 잡아 어린이집에 왔으며, 아이 문제에 대한 상담에 대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 목표: 철이의 틱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협력하여 철이 상황을 관찰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순서:

- a. 교육 참가자 2명이 짝을 이루어 역할시연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교사와 어머니 역할을 정한다.
- b. 교육에서 다룬 상호작용과 배려 기술들을 이용하여 철이의 원내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가정에서는 어떠한지를 묻는다.
- c. 미혼모와의 진료 상담과정을 역할극으로 연습한 후 전체 교육생들 앞에서 시연해 보며, 시연 후 각자의 역할에서 소감을 발표한다.
- d. 역할시연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이 면접과정을 관찰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도록 한다.
- e.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시 역할시연을 해보고 소감을 발표한다.

- 또 다른 역할 시연의 예로 어머니가 자녀를 일찍 데려오거나 늦게 데려가는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극을 해보고 교육참가자들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4) 신체활동 및 집단 활동

신체활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와 성공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과 사회정서적 적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심성경 외, 2007) 교사가 애정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유아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래와도 친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표준보육과정(2007)의 영유아를 위한 신체활동 내용 참조).

라. 교육내용

1) 아동의 발달과 특성의 이해

(1) 미혼모의 자녀양육 및 아동의 특성 이해

한부모로서 미혼모의 자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양육미혼모의 증가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혼모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 족이 된 어머니들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으며, 자녀 역시 더 어려 좀 더 일찍 돌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미혼모는 원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한 타자의 범위 역시 협소한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미혼모와 자녀의 상황은 주요한 타자인 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혼모 자녀의 발달에 있어 영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영향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① 미혼모의 상황과 자녀양육

혼외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는 생명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육을 선택한 어머니들이다. 또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의 고·저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녀양육에 혼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진짜 내가 아이 낳고 내 새끼 안 버리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내 새끼 키운다. 부끄러운 일 절대 아니고 자부심가지고 살아야 되요. 나는 정말 대단한사람이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되게 좀 위축되고. 저기 대표님 오셔서 교육하시다보면 조용조용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개중에 몇 명은 정말 원래 성격이 온화하고 조용한데 아이를 낳고 위축된 엄마들이 많아요. 좀 자존감도 자꾸 줄어들고(당사자-9)

보통 부모역할의 수행에 있어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 환경에 대한 통제력 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문정숙·김영희, 2014)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모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매우 주요한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기 아빠와 단절되거나 혹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어 자녀양육 및 삶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고 또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런 상황은 미혼모로 하여금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여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연령이 낮은 미혼모의 경우 이런 욕구 충족이 결여되어 어린 자녀와도 정서적 연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Clas et al, 2009; 문정숙·김영희, 2014 재인용) 또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미혼모의 심리적 안정에 장애가 되어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양육미혼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양육 미혼모 중 절반가량은 미혼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월가족으로 부터 혼외출산 및 양육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관계 자체가 소원한 상태여서 일정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법·제도적인 지원체제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큰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혼모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영유아 대상 교직에 종사하는 보육 전문가들에게 특히 요구된다 하겠다.

② 아동: 때로는 애정과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애착문제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Bowlby, 1958;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정민현, 2003 재인용).

애착 이론은 초기 애착과 관련된 경험들이 내적인 작동모델(working model)의 형태로 인지적으로 표상된다고 가정한다. 즉 초기의 애착 경험이 내재화되어 유아의 자기 개념과 타인에

대한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대인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정민현, 2003). 심각한 경우에는 대인불안이 정서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엄마와 분리되어 어린이집이나 타인에게 맡겨질 때, 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낮잠을 자지 않거나 혹은 징징거리고 떼를 쓰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부모를 정서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거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불안과 우울,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박현주, 2011). 그리고 이런 부정적 정서는 불신과 불안, 분노, 공격, 공감 부족 등과 같은 자녀의 역기능적인 행동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아기 엄마와 개방적인 대화를 하고,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공동 노력을 해야 하며, 놀이치료 등을 통해 지지적인 환경요인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양육자의 반응성과 접근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애정적 유대와 긍정적 경험은 곧 내적 작동모델로 개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미, 2005; 김주연, 2008).

또 주요한 양육자의 반응성과 가용성은 어린 아동의 광범위한 표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실제적인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 어머니를 비롯한 주된 양육자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는 친사회성을 갖추는 반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공격성과 고립-위축행동을 적응 기제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유아는 초기에는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공격행동으로 직접 표현하지만, 발달해갈수록 언어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한다. 반면 위축-고립행동은 움추러 들고, 수동적이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박라진, 2004; 임형아, 2004; 김주연, 2008 재인용). 그러므로 유아가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력과 양보, 신체접촉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영유아의 애착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록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였다 할지라도 보육 교사나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바림직한 관계를 형성하면 이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갈등에 직면했을 때에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윤소영, 2000; 김주연, 2008 재인용). 이와 같이 교사는 유아가 애착관계에서 한 형태를 표상하며 또래관계의 지향 및 탐색의 초석을 제공하는 주요한 인물이다(유영미, 2013).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미혼모와 자녀간의 응집성을 높이도록 양육 코칭 혹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한편, 자신도 유아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등원이 빠르고 하원이 늦을 수 있어요”

홀벌이 가정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자녀의 등원과 하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미혼모는 출근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데려오거나 혹은 조금 늦게 귀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반일제 혹은 시간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또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복지가 미흡한 우리나라 현실 때문에 가정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이른 등원과 늦은 하원을 할 수밖에 없는 유아에 대한 배려와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간혹 어머니가 가정 상황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유아에 대한 차별의 우려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아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도. 또 미혼모 시설에서 보낸 애기들인 줄 알고 되게 싫어 하더라구요. 좀 아침 일찍 보내는 것도 좀 천천히 보내라고(당사자-1).

(2)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 함양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네이버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리고 유아 인권은 유아 인권은 만 3~5세 유아 ‘권리의 주체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 것과 ‘보호의 대상자’로서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김안나, 2014).

유아 인권은 유아가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또 유아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이기 보다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부모나 성인,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조주랑, 2010). 이런 이유로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보육교사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지켜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교직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교사의 가르치는 기술과 능력, 교육의 효과가 교사의 윤리적 성품과 직결되고 이러한 교직윤리는 자율성과 함께 책임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문용린, 1993; 조경옥, 2001; 임승렬, 2002). 실제 이런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교사 자신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권과 윤리, 그리고 전문성은 상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실제 보육교사의 인식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서정은, 2000). 여기에는 교사 대비 많은 유아 수, 좁은 공간과 시간적 제한, 그리고 낮은 복리후생 및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여건들이 개선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유아 인권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 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 인권의 요소는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관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와 공정한 생활태도 및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평등의 권리, 그리고 신체적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의 권리, 교육 및 건강권 등의 사회적 권리 등으로 이루어진다(김안나, 2014:17-20). 이 중 기본권과 평등의 권리, 사회적 권리는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돌봄과 교육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3> 유아인권과 하위 권리

권리	하위권리
기본적 권리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관용,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	공정한 생활태도, 타인의 권익 존중, 약속과 규칙 지키기, 법과 규칙 지키기
자유 의 권리	인신()의 권리(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비밀보장, 주거, 거주 의 권리), 정신적 권리(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 등)
경제적 권리	재산권, 직업선택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공익추구 등
정치적 권리	참정권, 정치적 자유, 의견표현의 자유, 타인 의견 존중하기, 합리적 의사결정 등
사회적 권리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 등

2) 상호작용과 배려

(1)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 교사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성찰함

"차별받는 이들은 심리적 생존을 위해 비언어적 단서에 귀 기울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혼모와 자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이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편견 혹은 동정어린 태도보다는 생명을 존중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일반의 가정과 다름없는 가정임을 인식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혼모 자신이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듯이 다른 사람도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임신과 출산,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미혼모와 그 자녀를 대하는 전문가의 인식과 가치관을 현 상황 속에서 점검해보고, 최소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효능감과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비언어적 암시를 통해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또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의식적 위선 또는 무의식적 편견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미혼모와 그 자녀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한다.

나 아는 집 애는 18개월인데 다른 사람을 문대요. 그 보육교사가 하는 말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 어머니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 치료 둘이 받으라고. 문 이유가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가서 교사가 가서 친구한테 주세요 했는데 한번에 안주니까 화나서 물었대요 살짝. 근데 그거가지고. 그 일반 집 아이네 집에서 미혼모 애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정신과 치료 받았어요. 미혼모 집 애가 일반집 애를 물면 그러더라고요. (FGI 참여자 A)

2002년도에 전국단위 교사 연수회에 참석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아동의 심리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정형화된 인식과 가족주의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 등은 아동에 대한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송다영·성정현·한정원, 2003), 이러한 교사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가치관 척도나 사회적 거리감 척도 등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혼자 애 키웁니까라고 말을 하면, 저는 되게 안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안좋다면,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재 좋았는데 좋은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 키운다 하면 저에 대해서 다 알아보기도 전에 선입견 가지고 잘라 버리는거예요. 대인관계 전력이 좀 다른게, 한 반년이나 일 년 정도는 제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떻게 혼자 애 키우는지 오픈을 안해요(당사자-2).

- “누구의 아이인지보다는 공정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차별적 태도와 고정관념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사 개인적 신념에 따라 가족유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동을 달리 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공정한 출발은 곧 정의이다. 하지만, 이런 명제가 100%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정한 출발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보장과 서비스를 통해 그 갭(gap)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는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함께 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웃, 특히 어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공정한 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서 시작된다. 누구의 아이인지 보다는 영유아 자체가 생존을 위해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 근거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에선 주요한 양육자중 한사람인 보육교사가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저희 때만해도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없거나 그러면 친구들도 별로 안 좋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할 거 아니예요.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한부모 가정인거 손들어보라고 그런 얘기 할까봐 좀 걱정이죠. 애가 창피 하고 그럴까봐 (당사자 12)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더라구요. 보내고 싶은 곳에만 대기해놓고 안보내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 이유가 주변에 보육교사 친구들이 가급적이면 36개월 전엔 보내지 말라고. 특히나 어린이 집에서 선생들부터 한부모나 미혼모라고 하면 차별대우가 시작이 된대요. 인식이 박혀있는 순간, 사무실에서 이야기 안해도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알게 된대요. 36개월 이후에 아이가 자기 의사를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때 보내고 가급적이면 안고 있으라고. 실제 보육교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실제론 더할 것 같아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FGI 참여자 B)

(2) 반편견 교육 실시

편견은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해 갖게 되는 좋고 싫음의 태도로써(Allport, 1954; 윤혜원, 2010 재인용),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한다. 편견은 적절한 지식, 사고, 이성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더불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성, 인종, 민족, 능력, 장애유무, 가족상황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반편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윤혜원, 2010).

Hall과 Rhomberg(1996)에 따르면, 유아는 능력, 연령,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성, 성, 인종, 성애의 10가지 영역에 대한 편견을 갖기 쉽다.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신체적인 면에서 정체감을 알아내며, 피부색의 지각이나 성, 인종 등에 관한 문화적 조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편견도 갖게 된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미성숙 상태인 유아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지 않도록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윤혜원, 2010).

- 토의: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토의를 유도함
- 사연 있는 인형(persona doll) 방법: 인형의 사연을 들려주고, 듣고 난 후 토의하고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함
- 반편견 도서·그림책: 인종, 동물, 외모, 음식, 가정에 관한 편견이 반편견 동화나 그림책을 통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며, 동화나 그림책 속에서 다양성과 인간의 경험을 알도록 함

(3) 비밀보장: "남이 알기 원치 않아요" vs 유아와 가정에 대한 윤리

유아교사는 NAEYC뿐만 아니라 2010년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발표한 “보육시설장·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에서도 영유아교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스스로 지켜야할 사회적 규범이자 행동의 지향점으로서 유아와 가정, 동료교사 및 기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정명자·최혜순, 2014). 이중 가정에 대한 윤리는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가정구성원과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가정상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구성원과 상호호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 개인적 정보는 정보보호의 차원뿐만 아니라 비밀보장의 윤리 차원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미혼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가족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 현재는 어떠한지, 아기아빠는 누구이고 연락은 되는지 등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개인의 허락 없이 사생활을 노출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비밀보장 및 사생활보호에 관한 윤리이다. 간혹 자녀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미혼모 스스로 교사에게 상담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정보는 유아의 어린이집 내 생활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4) 애정과 전문성에 기반한 긍정적 상호작용

현장에서 시설장이 가장 원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영유아에 대한 애정과 반응성,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융통성과 문제해결력 등이다. 이중 전자는 사실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선희, 2008; 길현주·김수영, 2014).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애정과 배려심을 갖고 신체적·사회적·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위해 유아와 함께 활동하고 반응적이고, 민주적이며, 따뜻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질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상호작용: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자질이자 평가의 요소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는

애정표현하기, 이름 부르기, 칭찬하기, 언어적·물리적 도움주기, 질문하기 등이 포함된다(서유진, 2010).

-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능감의 촉진: 또래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서 유아가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점차 다른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며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인지적 성장을 하게 된다(정대영·김영아, 2010). 또 갈등을 조절하는 상호작용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을 높인다(길현주·김수영, 2014).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관심가지기, 또래에게 요청하기·요구하기·질문하기, 공유하기, 모둠활동에 참여하기 등이 있다(서유진, 2010).
- 수용적이고 반응적 태도: 영유아시기 보육 및 교육기관은 초중고 교육기관과 달리, 정해진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결부되어 있다(한민경, 2009; 권혜진, 2013 재인용). 그리고 이런 교육사의 전문직 자질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는 영유아에 대한 애정과 반응성이다. 즉,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수용적이고 반응적 태도로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해주며,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은 유아의 정서조절, 또래관계기술, 사회적 규범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길현주·김수영, 2014).
- 놀이참여: 언어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신체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5) 유아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유아는 애착을 형성하는 주요한 타자를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거나 혹은 불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미혼모의 자녀는 엄마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충분하고 온전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함양하게 된다. 그리고 유아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공간인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함양하게 되는데, 만약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혹은 수용성이 다르다면 유아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를 알아본 김성숙과 강현경(2012)의 연구결과, 유아는 ‘아빠,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 손자,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와 살고 있는 아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중 50% 이상은 '아빠,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입양된 아이', '새엄마나 새아빠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 '집이 아닌 다른 곳(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 살고 있는 아이'는 가족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형태와 부부와 자녀가 있는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가장 가족다운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가 가족의 형태와 기능 중 형태적 의미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기능과 정서적 측면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아 자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2006)은 유아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유아가 일찍부터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상호간 신뢰와 사회성을 갖도록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규칙을 정하고 따르는 것, 아동의 권리를 알리는 것 등을 교육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김안나, 2012 재인용).

보육교사는 이와 같은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체화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교육 속에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유아인권을 위해서는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아우르고, 이야기 나누기, 역할극, 그리기, 게임, 공동체 함양 활동 등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방식을 개발하여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서정은, 2000; 남궁선혜·김현정, 2011)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먼저 당면한 상황을 인권 관련 활동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인권에 대한 판단력과 동기화, 인권 옹호 행동을 통해 유아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이미래, 2012).

<표 4> 유아인권교육의 요소와 핵심가치

유아인권교육의 요소	유아 인권의 핵심가치
신뢰와 사회성 존중 갈등 해결하기 차별에 대처하기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 신뢰 쌓기 학급 규칙 정하기 인권 이해하기 아동의 권리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를 인생에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단계로 인식한다. ▪ 유아가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다. ▪ 유아와 가족간의 결합을 인식하고 지원한다. ▪ 유아는 가족, 문화, 조직, 사회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되고 지원받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 각 개인(유아, 가족구성원과 동료)의 존엄, 가치, 유일함을 존중한다. ▪ 유아, 가족, 동료들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유아와 성인은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한 관계의 맥락에서 그들의 모든 잠재능력을 발현한다는 것을 인지한다(NAEYC,2005).

참고문헌

- 김안나, 2014. 3-5세 누리과정 지도서에 나타난 유아 인권 관련 교육내용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2008. 유아기 애착유형에 따른 성격발달 및 사회·정서적 행동.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라진, 2014 가족형태와 가족기능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준. 2014. 소수자의 차별 분석과 소수자 권리 보호 위한 통합적 접근. 법과 인권교육 연구. 7(1): 79-105.
- 박현주. 2011. 한부모가족 아동의 심리적응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1): 207-235.
- 서유진, 2010. 해결중심 단기상담이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정서문제, 수업중 부적절한 행동, 공격행동 및 긍정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377-398.
- 안효진·임효진. 2006.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61-68.
-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5.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14. 2014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
- 이미래, 2012.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Bekki Davis·Lyndal Khaw·Alyssa Nittolo. 2014. 미래 가족학 전문가를 위한 다양성 교육: Hollinger의 모델에 근거한 상호작용적, 반영적 교수법에 관한 제언. Original Article. 52(2): 111-125.
- 이수련. 2013.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계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221-239.
- 이은정. 2011.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25(2):319-337.
- 이정화. 2007. 한국유치원에서의 반편견 교육: 동극활동을 통한 유아들의 편견감소 효과. 동북

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정대영·김영아. 2010.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장애 유아의 수업방해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299-323.

“10년간 150조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1.12명 → 1.19명 제자리”. 매일경제, 2015. 2. 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3138>.

Coulehan, J. L. & Block, M. R., 1997. The medical interview: mastering skills for clinical practice. 3rd ed. Philadelphia: FA Davis.

Norfolk, T., Birdi, K. & Walsh, D., 2007. The role of empathy in establishing rapport in the consultation: a new model, Medical Education, 41, 690-97.

부록

1. 공통교육 내용 I

2. 공통교육 내용 II

3. 보육교사 대상 교육 자료

4. 미혼모 인식개선 교육용 동영상

- Help her, help her baby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http://kumnsn.org/kor/index.php>>
- 지식채널 가정의 달: 미혼모 인식개념 캠페인 <AK PAM>
- 어떤 외출 <EBS 지식채널e, 2009. 9. 28>

5. 미혼모 인식개선 교육용 웹툰

- 또하나의 존중과 배려, 미혼모 인식개선 교육 모델개발연구: 2013년 한국여성재단 교육모델 개발 최종보고,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3.